

학생_수기-3

학업중단 예방 사례 응모분야						
지도자 및 교원				학생		
				■		
사례명	나는 내가 참 좋다					
응모자	학교	○○고등학교	학년		성명	○○○
학업중단 위기원인	학업의 흥미 부족과 정서적 불안정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참여 일자(기간)	4.12~4.29(19일), 5.7~5.14(8일), 7.10~7.19(10일)					
<p>나는 이상한 아이이다. 남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내가 싫다. 아니 싫었다.</p> <p>그날도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가는 게 싫었다. 그런데 아빠가 말대꾸했다는 이유로 내 목을 졸랐다. 너무 놀라서 탈출하자마자 경찰에 신고했다. 엄마는 아빠한테 반항한 내 잘못도 있다며 경찰에 신고하면 어찌냐고 했다.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청소년 쉼터나 보호시설에 대해 안내 받았지만 엄마와 상의해서 근처 원룸으로 독립하게 되었다. 독립을 하면 행복할 것만 같았다. 잔소리도 없고 눈치 볼 사람도 없고, 그렇지만 조금은 외로웠던 걸지도 모르겠다. 그 전에는 어찌다 하던 술과 담배를 거의 매일하게 되었다. 그만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됐다. 원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었는데 더 힘들었다. 지금처럼 알바하면 돈 벌 수 있는데, 대학도 안갈건데 굳이 학교를 가야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 지각과 결석이 잦아지며 학업중단 숙려제를 권유받아 참여하게 되었다. 숙려제에 참여하며 나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 보는 시간이 생겼다. 숙려제동안 학교에서 상담도 받고 감정일기도 썼다. 평소 잘 하지 않던 것들이라 어색했다.</p> <p>그리고 있던 중 일이 하나 더 생겼다. 내게는 혼자서 힘들 시간에 많은 힘이 되어 준 여자친구가 있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나와 만나는 것이 미안하다 생각이 들어 헤어지자고 했다. 그렇지만 자꾸 여자친구 생각이 났다. 그래서 참다가 한번씩 연락을 한다는 게 그 친구에게 의도치 않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다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걱정돼 말했더니 ‘네가 뭘데 자꾸 간섭하냐’는 말을 들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그래서 죽고 싶었고 한편 알아줬으면 했던 것 같다. 고속도로로 가서 라이브를 켜다. 나는 왜 남들과 다를까 고민하며 울고 있을 때 학교 선생님들과 경찰이 날 찾아왔다. 라이브 방송을 보고 친구들이 많이 걱정했다고 했다. 엄마도 울면서 오셨고 아빠가 사과하고 싶다는 말도 했다고 했다.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계속된 설득에 집으로 돌아가 아빠를 만났고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돌아오지 않을거라 생각해서인지 몇 달 만에 온 집은 낯설었다. 아버지와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 본 것을 처음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걱정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니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p> <p>지금 상황에서 바로 학교 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해 추가적으로 숙려제를 하기로 했다. 나에 대해 돌아보고 병원 가서 치료도 받았다. 친구들과 밤새 놀고 혼자 여행도 떠나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였다. 나는 남들과 생각하는 게 다르다.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게 부모님이</p>						

바라는 평범함과과는 다른 것 같아 힘들었다. 이렇거면 학교를 그만두자. 그리고 세상 여행을 해보자. 그렇게 결심을 했다. 그 순간 부모님이 졸업은 하는 게 좋지 않냐고 하셨다. 2학년까지는 마쳐보고 하고픈대로 해주겠다고 설득하셨다. 내키지는 않았지만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원하시면 조금 더 노력해보기로 했다.

죽으려 했던 그날 이후 반에 들어갈 수 있는지 친구들은 볼 수 있을 건지 걱정도 많았고 전학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나는 학교라는 제도가 싫지만 그래도 내게 좋은 친구가 많이 생긴 좋은 학교였다. 그래서 학교를 다닌다면 여기가 나을 것 같았다. 오랜만에 돌아간 교실에는 그다지 그날에 관심 없는 애들이 많았고 내가 돌아온 것을 반겨주었다.

어느 날 친구가 선생님들과 삼겹살파티 한다고 하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제안을 했다. 갑자기 웬 삼겹살인가 했지만 친구가 네가 구워주는 고기가 맛있을 것 같다고 했다. 상담선생님도 같이 가자고 설득하셨다. 위클래스에서 주관하는 거였던 모양이었다. 그리고 지난번 라이브방송 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며 위클래스로 찾아왔던 친구도 데리고 오면 좋겠다고 하셨다. 토요일 아침에 가는 거라 일어나는 게 어려워 고민했더니 다른 친구가 집으로 나를 데리러 오겠다고 했다. 그래서 가기로 했다. 실제로 걱정한 대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늦어 못 갈 뻔했지만 선생님들께서 버스를 돌려 집 근처로 데리러 와주셔서 무사히 참여할 수 있었다. 선생님과 학생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 했는데 강사가 자신의 삶에서 공부의 의미와 자신감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나중에 내가 일을 하는데 공부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공부를 하지 않았던 사람이 말하는 공부가 필요하다는 느낀 자신의 이야기라서 선생님들의 말과 다르게 와닿았다. 무엇을 하든 배움은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리고 자신감이 무엇을 바꾸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친구들의 추천으로 내가 우리 조의 리더가 되었다. 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인데 그건 내가 자신있었다. “나는 내가 참 좋다! 나는 잘할 수 있다!!” 큰 소리에 다들 놀란 눈을 할 때 조금은 으쓱하였다. ‘내가 좋다’라는 오글거리는 말도 하다보니 진짜 그런 것 같기도 하다. 또 조별 활동에서도 내가 이야기한 아이디어로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친구들이 좋아했다. 삼겹살은 고깃집 알바 경험을 살려 구웠는데 역시 솜씨가 다르다고 해주었다. 선생님들도 나를 오늘 새로 봤다며 칭찬해 주셨다. 학교는 공부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새로운 추억이 생겼다. 이렇게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들이 있다면 학교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상담선생님이 불안한 10대 위한 멘토와 하는 토크 콘서트도 준비했으니 참여해 보라고 하셨다. 삼겹살파티를 초대한 친구도 간다고 했다. 별 기대없이 갔는데 많은 애들이 있었다. 앞으로 살아야 할 지 고민인 내게 같은 고민을 하는 친구가 많다는 것이 위로가 되었고 아직 잘 모르겠지만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었다. 외국어 공부를 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외국 가서 살고 싶기에 언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실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반대했을 때는 조금 화가 났었다. 마음대로 하라고 할 때는 언제고 하나를 하고 나면 또 하나씩 바란다고 하는 게 짜증났다. 그래도 결국은 잘되었으면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느껴져 조금 더 이뤄드리기로 했다. 그리고 친구들도 학교를 같이 졸업하자고 이야기 해주어서 그래 까짓꺼 졸업은 해보자고 생각했던 것 같다. 따분하고 재미없는 곳이었던 학교가 요즘은 조금 재미있어졌다. 엄마가 이제 와서 ‘어디 가서 들었는데 넌 학교 그만뒤도 잘 살 거래, 그러니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뒤도 돼.’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많이 어이가 없었다. 3학년이 되면 직업교육 위탁을 갈 수 있다고 해서 부모님과 약속한 2학년이 아닌 졸업을 하려고 한다. 그리고 알바비를 모아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는 일본으로 떠나 거기서 일을 해보고 싶다.